

## 작업노트; 'Workers of All Lands Unite', 'Amor Fati!' & 'White Out'

한성필

2005년, 영국의 BBC 방송은 전문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있는 사상가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단연 1위는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며 사회 혁명가인 '카를 마르크스 (Karl Heinrich Marx 1818~1883)'였다. 이처럼, 100여년이 지났지만 '카를 마르크스'와 그의 경제적, 사상적 동지였던 '프레드리히 엥겔스 (Fredrich Engels 1820~1895)'가 함께 집필한 방대한 정치 경제학 논문인 '자본론 (Das Kapital)'과 '공산당 선언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그리고 그들의 사상인 마르크스주의(Maxism)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향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러시아 10월 혁명을 주도한 '블라디미르 레닌'은 마르크스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공산주의의 기본 토대를 만들었다. 결국 그들의 '가상적 이상과 비전'은 20세기에 들어 전 세계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축으로 갈라놓고 냉전을 통한 이념적 대립과 분쟁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현실로 구체화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전후로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이 무너짐에 따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세상으로 보았던 공산주의는 역사에 등장한지 채 백년도 되지 않아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에 반해 마르크스가 '몰락은 역사적 필연'이라고까지 했던 자본주의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견재해 있는 것은 그 체제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전 지구로 확장되면서 부국과 빈국,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인간소외, 물신숭배, 생산과 소비의 과잉, 공황의 문제 등도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적인 노동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명과 자본주의 세계화와 계층화에 대한 그들의 정확한 비판에서 탁월한 면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예견과 정반대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맹점이 있지만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그들은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을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태어난 독일, 그 중에서도 그들의 젊은 시절에 사상의 기초를 다지게 된 베를린에는 마르크스-엥겔스-포럼 (Marx-Engels-Forum)이라는 공원이 있다. 이곳은 독일 통일 전에 동베를린 지역으로써 동독 정부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면서 1986년 4월 4일, 무게 2톤이 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이 위치하게 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몇년 지나지 않아 독일 연방 공화국 정부는 마르크스, 엥겔스 동상의 존폐 여부에 대해 베를린 시민들에게 찬반 투표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많은 베를린 주민들이 그들 동상의 존립에 대해 찬성을 한 덕에 현재까지도 구 동독 시대에 만들어진 오리지널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2010년 9월, 그들의 운명은 도시의 팽창과 이에 따른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지하철 설립으로 인해 그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해야만 했다. 마르크스의 비문에 적혀있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Workers of All Lands Unite!)'와 같이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그들 동상을 파헤치고, 측량하고, 측량점을 그들 미간 사이에 붙이며 결국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은 크레인에 이끌려 하늘을 날아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과거에는 구 동독의 영광이었던 알렉산더 광장의 텔레비전 타워의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새롭게 이동 후에는 자본주의의 상징인 서쪽을 바라 보고 있다. 그들이 살아 있다면 새로운 장소에서 이 광경들을 보면서 무슨 상념에 잠겨있을까?

본인의 'Amor Fati' 비디오 작업에 쓰인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의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을 작곡하면서 그는 서두의 주제를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들긴다'고 했다.

또한 '신은 죽었다' 이야기한 니체 (Friedrich Wilhelm Nietzsche)는 '운명을 사랑하라! Amor Fati!'고 했다.

마르크스, 엥겔스여,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린다. 그러므로 운명을 사랑하라! Amor Fati!'**